

# 영암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 속도

2030년까지 나불리 14만㎡ 부지에  
연구개발·가공·관광·교육 융합 추진  
농업 6차산업 산실 선도 모델 조성

영암군이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국내 최대 무화과 주산지 영암의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을 넘어 연구 개발·가공·관광·교육이 융합된 6차산업 농업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최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테마파크 부지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단계별 사업과 부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화과 테마파크는 2026~2030년 5개년 계획으로 산호읍 나불리 14만㎡ 부지에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부지는 KTX역,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뛰어나고 가까이에 영산호 유원지가 있어 관광·교육 수요와도 연결된다.

1단계는 70억원 규모로 무화과 제조·가공시설과 무화과 연구소, 체험 공방 조성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군은 지난 3월 전남도 공모 선정으로 도비 9억원을 포함해 무화과 제조·가공시설 예산 18억원을



영암군 관계자들이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확보했다.

무화과 제조·가공시설에는 건식·습식 가공실을 설립하고 가공 장비 등을 들여 1차 생산 중심 무화과 농업을 가공 중심 산업으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3단계는 체험·힐링 공간 확장으로 구성돼 있다.

영암군은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해 무화과의 산업

가치를 확장하고 테마파크를 대표 체류형 관광명소로 가꾼다는 구상이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무화과 테마파크는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끄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 문내면 고현지구 150가구  
마을단위 배관망 구축 LPG공급  
산정·신방마을도 배관망 구축 확대

해남군은 고당, 고전, 고평, 고대마을 등 문내면 고현지구 150가구에 LPG 공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안전장치 등을 설치해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하고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연료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사용 안전성과 편의성도 향상된다.

문내면 고현지구는 2024년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남군은 고현지구에 이어 읍면 단위 사업으로 송지면 산정마을(454가구), 마을 단위 사업으로 복일면 신방마을(30가구) 등으로 LPG배관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LPG 배관망 구축은 기존 LPG 용기 개별공급 방식 대비 약 3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해남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항~모도 항로’에 취항한 섬사랑2호.

## 완도항~모도 항로 섬사랑2호 취항

185t 차도선 여객정원 80명

완도항과 모도를 오가는 항로에 섬사랑2호가 취항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새로 건조된 ‘섬사랑2호’가 기존 여객선을 대신해 지난 2일부터 완도항에서 모도 항로에 취항했다고 밝혔다.

‘섬사랑2호’는 여객선사인 ㈜해광운수에서 위탁운영하며, 완도에서 모도까지 편도 21km를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한다.

새로 취항한 ‘섬사랑2호’는 부산의 동일조선소

에서 건조한 185t 차도선으로 여객정원 80명, 운항속력 14노트이다.

적재 능력은 중형승용차 기준 15대로 기존 여객선에 비해 적재 능력과 운항 속력 등이 모두 향상됐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더 크고 빨라진 섬사랑2호가 취항하면 해상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 완도 도서지역의 농·수산물 수송도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여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완도군 전남지역 최초 ‘스마트 우편함’ 설치

터치스크린 방식 보안성 높여

완도군이 민원서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남 지역 최초로 ‘스마트 우편함’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 우편함은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나 일반 우편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폐 방식을 열쇠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전환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췄다.

우편함은 사전 등록된 담당자만 열 수 있으며, 개폐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돼 무단 열람 방지 및 문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 우편함 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주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 기



터치스크린 개폐 방식의 스마트 우편함.

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신안군-한국해운조합 ‘섬 관광 활성화’ 맞손

생활인구 증가 등 협력 업무협약

신안군이 한국해운조합과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교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대응 ▲해운산업과 신안군 지역경제 발전 상생 도모 ▲일반인(관광객) 여객운임 정부 지원 공동 대응 ▲흑산권 관광객 유치에 위한 일반인 여객선 운임 정부 지원 등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속 가능한 섬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섬 관광 활성화는 단순히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인구 유입,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무안전통시장 ‘황토골 토요야시장’ 5일 개장

먹거리·예술공연 등 각종 이벤트

10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무안군은 오는 5일 무안전통시장에서 ‘2025 황토골 토요야시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토골 토요야시장은 오는 10월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황토골 토요야시장은 ‘2025년 무안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만의 이야기와 문화를 살려 문화관광 특화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획됐다.

황토골 토요야시장은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문화예술공연 ▲체험형 콘텐츠 ▲주민참여 이

벤트가 어우러진 복합형 테마장터이다. 전통시장의 정체성을 지키고 현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시장 모델로 운영된다.

행사장은 맛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존’, 다양한 체험과 플리마켓이 열리는 ‘체험존’,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연존’으로 구성되고, 상인회와 사업단이 공동개발한 특화상품도 방문객을 맞는다.

개장식은 온라인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방문객 대상 기념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는 등 농가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상인회 주도와 주민참여로 완성되는 야시장이 무안의 대표 콘텐츠가 되고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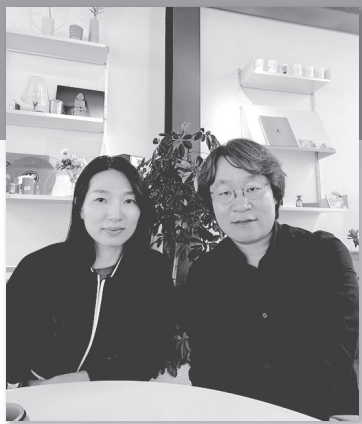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